

규조화석 군집을 이용한 천리포 습지 퇴적물의 제4기 고환경 연구

류은영¹⁾ · 남옥현¹⁾ · 양동윤¹⁾ · 김주용¹⁾

서해 천리포 연안습지의 CL-④ 시추공 퇴적물에서 산출된 규조화석 군집으로부터 현세 동안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고환경 변화를 연구하였다. 규조군집 조성은 해수, 기수종과 담수종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규조군집의 산출 양상을 근거로 5개의 규조분대와 2개의 아분대를 설정하였다. 이들 규조화석 분석자료를 퇴적상 분석자료와 연대 분석자료와 비교·분석하여 홀로세 고환경 변화와 연대를 추정하였다.

연구지역은 약 6,000년 전에 조간대 (tidal flat)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조간대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작은 규모의 호수 또는 웅덩이 (small pond) 등의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점차 건조화 되어 담수 소택지 (swamp/bogs) 환경으로 바뀌었다. 천리포 연안습지의 CL-④ 시추공에서 인지한 현세 퇴적환경 변화는 해수면 변동과 연구지역의 지형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규조화석, 연안습지, 고환경, 해수면 변동, 현세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 (ryu415@chollian.net)